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7 No. 1 2017. 3. 26
편집: 홍보 위원회

2017

사순절 묵상집



2017

MARCH

재의 수요예배
당회소식
제직임직 및 장로 은퇴식
위원회소식
부서소식
목사 안수 및
위임 예배 인삿말
장로 은퇴사
화보

권두언

이영길 목사

교회력 예찬

새해의 시작은 양력 1월 1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동양에서는 음력 1월 1일도 문화의 유산을 지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인지 더 크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교회도 행정적으로는 양력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칼렌다 곧 교회력의 시작은 주로 12월에 시작되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신앙의 칼렌다가 시작되고 사순절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력의 날짜는 항상 양력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3월 1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지만 작년에는 2월중에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도는 3월 1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2월 중 하루인줄 압니다. 곧 매년 사순절의 시작 날짜는 다르게 우리를 찾아 옵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매년 시작하는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매년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Editors:

김한나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재의 수요일 예배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은 기독교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재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때 사용한 재는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입니다.

올해는 3월 1일이 재의 수요일로, 수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은 요한복음 15:1-8의 참포도나무의 비유로 "너희는 가지라"라는 메세지로 은혜의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꽃을 맺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꽃/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의 영양을 열매에 공급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뿌리에서 영양을 받지만 그것을 꽃/열매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순절 계을 준수 초청와 재의 안수가 거행되었고, 결단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 계을 준수 초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재를 표식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온 이 표식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결단의 고백]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수난으로,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March 31, 2017)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일년 반동안 본교회의 중고등부를 맡아서 헌신적으로 수고해오신 강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9. 3 월 정기당회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본교회의 회계직을 계속하기 어려워 부득이 제출한 김준구 집사님의 사직서를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그 후임으로 김진기 (안수)집사님을 앞으로 3 년간의 임기로 임명하였습니다. 실 사무인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부의 관할하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 2017년도 NCKPC 총회가 4월 25-28일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회는 본교회의 총 대로 조준호 장로님을 임명하여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영길 담임목사님, 김한나 추천 장로님 그리고 김정선 장로님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11. 보스톤 한인교회 60년사 편찬을 기념하여 한국내에 거주하는 본교회의 옛교우들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알랜 기념관) 기념 만찬회를 열고 (4월 29일), 그동안 책자 배포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옛교우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본 교회의 제 2의 희년을 향하는 비전을 share 하며 한국내에 흩어져있는 옛교우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회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정선 장로님의 주도하에 이영길 담임목사님과 본교회의 몇몇 교우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7 년도 당회 및 각 위원회

당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한승희 장로	
	재단 이사회	장양술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운영위원회	이정규, 이유택	
	건물 관리위원회	엄재관	
	교육 1부 위원회	김세철	
	교육 2부 위원회	한문수	
	교육 3부 위원회	권복태	방경남
	교인 1부 위원회	이문영	윤미자 집사
	교인 2부 위원회	이문영/이정규(협력)	
	국내선교위원회	이유탉	유승오 집사, 이해원 집사
	해외선교위원회	안성완	김경애 권사
	예배예술회	장양술	
		1부찬양대장: 엄재관	2부찬양대장: 김영범

	재정위원회	권복태	회계: 김준구 집사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문수	
	홍보/출판/역편위원회	장양술(8월까지)/박신영(협력)	김한나(9월부터 위원장)
	무임소	강상철(한국학교 교장)	
	집사회	손영권 집사	집사회 고문: 이정규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한승희 당회장 이영길(당연직)	이사장 장양술, 한문수 재정위원장 권복태(자문)
	공천위원회	권복태	엄재관
	회계 감사	이유탉	
	노회 총대	당회서기(당연직) 한승희	김세철

2017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교구	교구장	구역장	교구	교구장	구역장
북동 구역	장양술	최정열	중서 1 구역 중서 2 구역	김영범	방경남 김제성
북서 구역	박신영	노시일	중서 3 구역 중서 4 구역	엄재관	손우성 김진기
중앙 1 & 2 구역	한승희	김경애 (부)이경자, 이문희	남동 구역	김정선	이재영
중앙 3 구역 중앙 4 구역 중앙 5 구역	안성완	정하균 김동규/이승연 신보경/손영권	남서 1 구역 남서 2 구역	이정민	김경애 (부)이경자, 이문희 홍도화
			영어구역	김세철	이혜승

소그룹 성경공부반 인도자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반 이름	인도자	부인도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요한반	강운범 집사	박종열 집사
다니엘반	김동숙 집사	이숙재 권사	바울반	이재익 집사	정현아 집사
안드레반	김영순 집사	박신영 장로(임시)	부부청년반	한문수 장로	전은영 집사
빌립반	이선영 장로	김동규 집사	강의식 성경공부	이요한 목사	
			금요 저녁반	노시일 집사	

2017 년도 2 월 제직 임직식

2월 5일 주일 제직 임직 및 은퇴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재 임직된 장로와 안수 집사, 신임 서기 집사의 임직식이 있었고 구역장 및 소그룹 인도자 임명식이 있었고, 또한 은퇴 장로로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변화경 장로님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신임 제직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재임 장로: 강상철

재임 집사: 구용한, 김용욱, 심운보, 이성숙, 이태호, 이혜승, 이혜원(A),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김경태, 김진홍, 채진병, 김동규, 김동숙, 김은미

신임 서리집사: 강종균, 김미희, 김제성, 노시일, 박해인, 이유진, 임선경, 전아사, 전은영, 채은혜

위원회 소식

홍보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1. 2017 년도에도 사순절 묵상집 500 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에 실린 묵상의 글과 함께 날마다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에 귀한 은혜를 온 교우가 함께 누리는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홍보위원회에서는 예배위원회와 협력하여 주로 상록기도회 어르신들을 위한 Hearing Ai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F Headphone (라디오파 헤드폰)을 10 개 구입해 교회에 비치하고 주일 1 부, 2 부 예배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으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유택 장로

뉴 멕시코 단기선교 프로그램 요약

1. 뉴 멕시코 단기선교 프로그램의 목적:

1. 뉴 멕시코 지역의 나바호(드네)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나바호 인디언들을 섬기고 계신 이덕재 선교사님을 도와, 지역에서 필요로하고있는 문화 사역을

통해 한국문화와 나바호 문화를 함께 나누고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 II. 문화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내의 국내선교 프로그램의 기반(플랫폼)을 마련하고, 다양한 달란트(음식, 음악, 예술, 네일아트, 태권도 등)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우들의 폭 넓은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III. 교회 내 다양한 연령층 (청소년에서 부터 청년, 장년, 그리고 시니어 그룹에 이르기까지)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의 인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이를 통해 교회 사역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IV. 뉴 멕시코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회의 중/장기 국내선교 비전과 전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선교기간: 2017년 7월 27일(토) – 2017년 8월 5일(토)

3. 선교지: 뉴 멕시코 주 나마호(드네) 부족 보호구역 (Cuba, Ojo Encino Community)

4. 숙소: Christian Vision Academy(CVA)

5. 프로그램 진행 장소: Ojo Encino Navajo Mission Life Center
나바호(드네) 부족의 보호구역 안에 위치

6. 선교 프로그램: VBAMS (Vacation Bible, Arts & Music school) – 가칭

- I. 성경읽기 프로그램, 음악, Arts, 댄스, 태권도, Nail Arts 등 다양한 분야
- II. Core 프로그램 개발과 선택 프로그램

역사편찬위원회 – 보스톤한인교회 옛 교우 서울 모임

그 동안 60년사 편집 부터 배송까지 서울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송을 위해 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 주셨고 부피가 큰 무거운 책 박스를 옮기느라, 보관 장소를 찾느라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이를 계기로 옛 교우들이 모여 회식하며 헌금을 모아 보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영길 목사님의 한국방문 시기를 기하여 교회 차원에서 수고하신 옛 교우님들의 수고를 치하 하고자 김정선 장로의 주관하에 서울의 이일영 장로, 이양자 교수 2분의 협조를 받아 계획을 추진 중, 장소 물색 및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연세대학교 알렌관을 예약했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도 계속 보스톤한인교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성원해 주셨음을 감사 드리며, 특별히 많은 옛 교우분들 께서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출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국내 배포까지 담당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옛 교우 서울 모임에의 초대

일시: 2017년 4월 29일 (토) 오후 5:30

장소: 연세대학교 알렌관 (첨부 지도 참조)

감사장 전달 - 이일영, 이양자, 김옥주, 최정열, 이해영, 김동환, 한기훈

모임 내용:

간단한 예배 후에 인사나누기, 저녁식사, 작은 음악회 (Piano Trio, 류주현 외 2명), KCB Video Presentation, 60년사 보고, 감사장 전달, 옛교우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담소와 친교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목적:

1. 'KCB 60년사' 편찬 및 배부에 많은 수고해 주신 한국 거주 옛교우님들의 수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2. 이번 기회에 한국의 보스톤한인교회 Network 가 세대간에 연결되고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이어지는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3. 지속적인 교제로 장래의 KCB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는 계기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위임 및 안수예배

장양술 장로

2월 19일, 보스톤한인교회는 미국장로교 보스톤 노회에서 이제 세분의 목사님이 파견된 교회로서 건설하고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보스톤 노회의 노회장과 많은 노회 관계자분들과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역사적이고 기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경문 목사님은 이제 지정 부목사가 아닌 부목사로 위임받으셨고 김수영 전도사님은 목사님으로 안수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신 Dr. 노라 티스데일 목사님은, 한국과 많은 인연과 특히 김수영 전도사님의 은사이신 예일신학대에 계시는 분으로, 윤경문 목사님과 김수영 목사님, 두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남과 다른 험난한 역경과 고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윤경문 목사님께 부목사님으로서, 김수영 목사님께는 안수 받은 목사로서,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거룩하고 신비한 부르심에 응하고 섬길 것을, 우리들은 이분들을 위해 진심어린 기도로써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노회 Administrative Commission 인, 보스톤 노회장 Chip Stapleton 목사,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Alison Moore 목사, Kelsey Rice Bogdan 장로, 퀸지영생교회의 피윤경 장로, 캠브리지 장로교회의 Virginia Coakley 목사 등이 참여 인도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규례와 약속, 그리고 선서와 권면속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두분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교회로 이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주님의 선물이였습니다. 아울러 예배후 에스더 여선교회와 마리아 여선교회의 많은 수고로 아름다운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부목사 위임식 인사말

윤경문 목사

먼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수영 목사 안수식과 저의 위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 축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보스턴이 눈이 많이 오는 2월에 이 예배를 계획 할때에 혹시 스토우 스톰이 오면 어쩌나 염려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노회 미팅을 눈 때문에 여러번 취소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릴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주전 뉴햄프셔에 노회 주관 training session에 갔다가 예기치않게 얼음 에서 넘어져서 뇌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큰 문제없이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 하며, 고통가운데 있을때에 많은 분들이 사랑과 염려(concern),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느때 보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어머니요, 믿는자들과 한 형제, 자매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꿈꾸자들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래전 보스턴 한인교회라는 이 주님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불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종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저에게는 늘 축복이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같이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역자들과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임식을 가지며, 저에게 다시 주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귀한 소명의 길을 걸어 가고자 합니다.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가실 것을 믿으며,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support 하여 주시는 교우님들, 청년들, 그리고 당회원 들과
노회원들, 저의 가족들에게 진심 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hank you so much !!

목사 안수 예배 인사말

김수영 목사

최근,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서약들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서약들은 제가 평생 꿈꿔온 일들이었고, 앞으로 평생을 노력해야할 일입니다.

5년 전 결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쉽지
않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남편 되보자고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크리스마스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딸 아이의 세례식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크나큰 서약을 했습니다.
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들이 겪고 있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평생의 꿈이었던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또 다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두
서약만큼 쉽지 않은 서약을 또 해버렸습니다. 평생 이 세 가지 서약 -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회자 -만 잘 지키고 살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약한 이 세 번째 약속은,
혼자 열심히 노력해본다고 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겸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약속 잘 지킬 수 있게 격려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셨고, 누구보다 제가 힘들어 할 때 슬퍼하셨으며, 누구보다 이 안수의 순간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인내가, 신앙교육이 저를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셨던 일이 생생히 기억에 납니다. 저와 누나를 방으로 부르시고는 각각 누나와 저의 이름이 적힌 두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 담긴 돈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치른 장례의 부조금과 보험금을 모아 돌려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나는 너희 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릴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혼자 너희를 잘 키울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 둘을 하나님께 키워달라고 부탁 드릴 생각이다.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이시다. 무엇이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거라. 그분께서 도와 주시고 살피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 보자. 앞으로 삶의 구석 구석에서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도록 이끌어주신 어머니의 신앙교육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 많은 손길들이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께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가 저를 어린시절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어머니와 같음을 느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어머니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순서를 위해 수고하신 보스톤 노회분들께, 설교를 위해 뉴헤이븐에서 달려와주신 Nora Tisdale 교수님께, 목사 안수의 과정과 예배 준비를 모두 이끌어주신 이영길 목사님께, 그리고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장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변화경 장로

46년전, 보스톤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저희 교회에 첫 발을 들인 저는 곧 반주자가 되었고, 나중엔 자주 바뀌는 지휘자로 찬양대가 흔들려, 임시로 지휘를 하게된 것이 3년전 은퇴를 할 때까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장로 직분을 그만 두어야 했는데 휴직으로 남겨져 오늘날 32년이 되었습니다.

1985년 저희 교회가 미국장로교단에 가입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중심으로 당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목사님이셨던 고, 홍근수 목사님께서 제게 “첫 여자 장로로 변집사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실 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 제가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하자, 목사님께서, “허허, 나는 변집사는 절대 그러지 않을거라 믿었는데...” 하셨어요.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으로, 며칠을 생각 하게 해주십사 했지요.

속된말로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통이 났습니다. " 하나님, 저는 장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의 그 경건함을 너무 싫어 했는데... 가난한 교회에서 혼자 악보 구해 복사하고, 대원들 ride 주고 찬양대 이끌기도 힘든데.... 집안, 학교일들은 많아지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혼자 중얼거리며 어떻게 피할까 궁리만했지요. 그러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이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 라는 성경 말씀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선뜻, 참된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복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삶의 고백은 제가 원하던 길 보다, 원치 않은 길들로 저를 보내시어, 예기치 않은 축복으로 이끌어주심을 알기에, 제가 이번에도 복종하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장로가 되었습니다. 막상 장로가 되고는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당회도 열심히 나가서 목소리도 높이고,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며, 저희교회가 성장의 큰 흥역을 몇번 치를 때마다 마치 제 몸이 앓는양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대로 쓰이기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에서는 절대 높낮이가 없어야함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함을 절감했습니다.

어느날 저에게 지워진 책임들을 다하기에 제가 부족함을 느낌과 새로운 일꾼들로 물갈이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굳어져,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휴무장로에 남겨 두셨습니다. 저는 휴무로 남고 싶지 않았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열심히 섬기고 은퇴하라는가보다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퇴라는 말이 송구스러워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감히 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과 여러 교우분들께 죄송하다는 고백을 해야함을 절실히 깨닫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너그럽게 감싸주신 이영길 목사님, 당회,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꿈을 갖게하기에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 섬기게 되는 축복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에 다섯번 째의 여 장로로 부르심 받은 김한나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앞날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소식

집사회

회장 손영권 집사

새로운 해에도 교회의 일들로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에스더/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이끌어주신 목사님 안수/위임식을 위한 만찬에 손영권, 박미정 집사회 회장님과 임원분들도 한마음으로 일손을 모았습니다.

3월 12일(주일)에 중고등부 및 청년 1, 2부를 위해 점심 한끼를 마련합니다. 교회에서 식사와 함께 주님안에서 교제하며 정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일 오후 5시 제직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제직생활을 시작하시는 신임 제직들을 축복하고 올 한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4월 8일 오후 12시부터 우리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겨울 내내 쌓인 묵은 때를 벗기고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모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4일(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후 친교실에서 어머니 주일 식사를 온 교우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주관으로 6월 4일 10시 반부터 Laz Anderson Park에서 상록 기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가 되시도록 집사회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사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록기도회

회장: 김형범 장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 모이는 상록회는 이번 1월 월례회를 1월 29일(주일) 1부예배 후 101호에서 가졌습니다. 최선경 권사댁의 막내아들 백형기/홍혜경 교우가 정성껏 식사를 제공하였고, 이어 박신영 장로님이 “청력 보조장치”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 이후 6,7명의 회원들이 주일 예배 때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 월례회는 2월 26일(주일)에 101호 방에서 가졌습니다. 이날은 중앙 4구역(구역장: 김동규/이승연 집사)의 구역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구역원 대부분이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느라 주일 아침엔 시간의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는 김형범 장로님이 “고려 가요 산책”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3월 5일 주일에는 여선교회 주관으로 이영길 담임목사 64회 생신축하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때에 상록기도회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3월 월례회는 3월 26일(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장소: 101호실 식사: 미정

강의: 김화옥 집사 “내 형제요, 자매요”

2017년도 임원단을 소개합니다:

회장: 김형범 장로 /부회장: 정명상 집사 /총무: 이숙재 권사 (10년 동안 총무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29명이나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매번 2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월례회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회원과 그 자녀들, 각 구역과 부서 그리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인을 공경하던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에스터 여선교회

회장 안은신 집사

저희 에스터 여선교회에서는 2017년을 시작하며 지난 두달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2/5일에 신년 회의를 시작으로, 2/19일에 김수영 목사님 안수식과 윤경문 목사님의 위임식을 위해 마이라 여선교회와 집사회의 도움과 함께 아름다운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15일에는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모두가 하나되어 헌신예배를 위해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3/12 - 마리아 여선교회와 함께 '세계 여성 기도 예배' 참여

4/8 - 집사회의 교회 대청소와 함께 교회 부역 정리

5월 - 어머니 주일 찬양제



아직도 에스더 여선교회 모임에 동참하시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두달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님안의 자매들의 하나되어 교회일에 앞장서서 나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We are sisters in the Lord" 라는 말을 표현을 벗삼아 이번 일년간 함께 하는 저의 에스더 여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전현임 집사

마리아 여선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여선교회는 45 세 미만의 에스더 여선교회와 45 세 이상의 마리아 여선교회로 나뉩니다. 마리아 여선교회는 저희 교회에 소속이신 여성분들중 45 세 이상이시면 모두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이 되십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것이 에스더 여선교회라면 저희 마리아 여선교회는 교회의 말 언니로서 에스더 여선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회 내의 일을 함께 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교회 안으로 전달하며 소통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은, 먼저 주일 1부 예배후 친교를 위한 다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교인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인업 하신 다과를 따뜻한 차와 함께 준비해드리며 교인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매년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는 세계여성 기도회를 위한 예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다른 나라 여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예배로 올해도 다음 주인 3월 12일, 우리교회 아래층에 위치한 커뮤니티 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필리핀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로, 마리아 여선교회는 이를 위해 감사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세계 여성들을 위한 기도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대외 행사로는 4월 7(금)-8(토)일에 가지는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원들 만을 위한 수련회가 없는 시점에 이러한 대외 여선교회 연합수련회에 참여해 여성들만의 은혜를 흠뻑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는 보스톤 한인교회 소속 여성분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 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마리아 회원들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인 여러분의 지지와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황동준 집사

새해를 출발하며 저희 중고등부는 1월에는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도 3주의 휴가를 가지셨고, 설교는 우리 교단의 자매교회인 제일장로교회의 부목사님이신 샘 정 목사님과 고던 세미나리에 계신 이주인 전도사님이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29 일에는 새해 교사모임을 이성숙 집사님 댁에서 가졌습니다. 매주 수고하시는 교사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으며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더욱 더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수련회 준비까지 나누었습니다. 집을 열어주시고 음식을 제공해주신 이성숙 집사님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2 월달에는 중고등부 lock-in 이 2 월 20 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4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친교의 목적으로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 학생들도 형들, 언니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도 학부모님들이 준비해주셔서 배부르게 먹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밤을 새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4 월 말에는 매년 갖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Grotonwood Conference Center 에서 21 일 부터 23 일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Guest Speaker 는 미정이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필요할 때에 불러주시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하나님 은혜 안에 청년 2부는 2017년 활기찬 시작을 맞이하였습니다.

1월 첫 금요일예배 때 윤경문 목사님의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젊은이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올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맞추어 청년 2부 지체들이 새로운 비전을 안고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1월 15일 김수영 목사님께서 "예배"의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하셨습니다. 다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의 중요성과 올바른 자세의 섬김에 대해 배웠습니다.

1월 22일 주일부터는 윤경문 목사님 인도 아래 봄 학기 성경공부 리더들이 (반아영, 배유미, 엄순호, 유보라 교우) 매 주일에 조별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 7시반에는 청년들이 모여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 열린 전교인 설날잔치에서는 3등을 차지하며 교우님들의 배려 덕분에 푸짐한 상품(쌀 등...)들을 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남선교회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월 19일에는 저희 부서를 인도하시는 윤경문 목사님의 위임식과 김수영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을 갖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준비에 도왔습니다. 2월 달에는 청년 1부와의 연합 예배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 뜻깊은 시간과 서로를 더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월 달 동안 유년부 pre-activity와 친교실/1층부엌 정리를 맡아 청년 2부 다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4일은 청년 2부 단합 이벤트로 브룩클라인에 있는 Clay room 이라는 곳에서 도자기 페인팅을 하며 주의 형제, 자매들이 따듯한 친교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사순절 새벽기도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매일 참석하고 있으며, 이 사순절 동안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3/31-4/2 일에는 청년 2부 수련회를 갖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임원/리더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련회에는 Cape Cod에서 열리는데, 조원태 목사님(뉴욕 우리 교회)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며, "N 포 시대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 -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열립니다.

늘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년들을 위해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1부

이요한 목사

2017 년도를 맞아, 히브리서 11 장 1-2 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저녁찬양집회와 소그룹 성경공부로 모이고 있으며, 저녁식사를 직접 준비하여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주일 모임 때는, "실만한 물가", "성경특강", 그리고 "주제별 특강" 시간으로 믿음의 삶을 나누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각의 시간은 청년 1부 지체들,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청년으로 바로 서도록 은혜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 1부는 매해 부활주일에 총회를 열고 한 해(2016 가을학기~2017 봄학기)동안의 행사 보고 및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저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행사들을 통해 청년 1부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와 공동체 안에서와 이웃들과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총회를 통해서, 청년 1부의 새로운 한해(2017 가을학기~2018 봄학기)를 이끌어 갈 회장단(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늘 청년 1부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청년 1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6 월에는 수년간 매해 진행하고 있는 "선교를 위한 음식 바자회"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1부로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이자, 작은 정성을 모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계획에 동참하는 시간이 됩니다. 늘 많은 성원으로 "하나님의 선교" 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청년 1부에서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도 청년 1부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들도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그리고 보스톤한인교회 공동체와 더 깊은 교제와 섬김을 나누는 청년들로 더욱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부청년부

회장 신정옥/최윤희 교우

저희 부부청년부는 2017년 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부부청년부" 라는 테마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1 월 새해 첫 모임에는 새가족 환영회(원유건/양지연 가정)와 베이비 샤워(차민호/신민영, 정성욱/김기연가정)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모임에는 "The light of the world" 라는 제목으로 김건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해 동안 각 가정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번째 주에는 임시 총회와 형제 자매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네번째 주에는 새가족 환영회(한폴/한혜정 가정)와 특별한 환송회(신은경 사모님/지민/지윤)가 있었는데요, 부부 청년부 모두 한사람씩 나와서 그동안 사랑으로 묵묵히 섬겨 주셨던 신은경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전하는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2 월에는 오랫동안 섬김의 본이 되어준 세 가정(채진병/최수경, 배광현/정유미, 이지훈/정은아 가정)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신혼이었던 부부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왔기에,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애뜻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할 것을 알기에 웃으며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1 월에 이어 2 월에도 "빛" 을 주제로 "가장 가까운 빛" 이라는 제목으로 김건철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번째 베이비 샤워(최일규/안고은, 한혜정/한폴, 이경민/김예진, 원유건/양지연)가 진행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일규/안고은 가정은 베이비 샤워 전날에 아기가 예정일 보다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3월 현재까지 태어난 네 명의 아기를 포함하여, 10월까지 두 10명의 10월까지 모두 10명의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돌아 오는 주일에는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휴가 중이신 김건철 목사님 가정을 위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을 묵상하는 찬양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새생명과 함께하는 저희 부부청년부를 위해,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탁구 동우회

탁구동우회장 권복태 장로

작년 3월 부터 매주 목요일 7시에 친교실에서 함께 모여 비지땀을 흘리던 탁구동우회는, 지난 해 10월 23일 창립기념 제 4회 대회를 전교인의 호응 아래 76명이 출전, 성대히 치른 후 겨울기간 휴식에 들어 갔습니다. 이제 새 봄을 맞아 탁구동우회는 겨울 동안 각자가 연마한 체력과 개인기를 선보이려 부활절이 끝나고 4월 27일 (목) 부터 다시 매주 모임을 갖게 됩니다.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체력 증진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탁구동우회는 오는 6월의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탁구 교실을 open 할 뿐만 아니라, 보스톤 탁구협회와 연계하여 8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부터 7시 까지 (어린이 여름 탁구 Camp)를 개설하게 됩니다. 회비는 없고, 어린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복장과 운동화 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 뿐 만 아니라 이웃의 자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 바랍니다!

교회행사 및 광고

담임목사 동정: 이영길 담임목사님께서는 4월 17부터 7월 16일 까지 안식년 휴가를 가지십니다. 또한 4월 25일 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NCKPC 제 46회 전국모임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며, 이때 포럼 발제인으로 섬기십니다.

쉐마의 밤: 3월 25일 3세대가 함께하는 쉐마의 밤이 있습니다. 이번엔 새로 안수 입직하는 집사, 장로님들의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제작 수련회: 4월 1일(토) 오후 5시 부터 제작수련회를 가집니다.

강사: 조문길 목사(PCUSA 한인목회실)

주제: "미국장로교 제작의 서약과 그 의미"

종려주일: 4월 9일

성금요일예배: 4월 14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성 금요일 예배에는 찬양대 1&2부 연합하여 음악예배를 준비하고 습니다. 찬양곡으로는 Faure의 "Requiem"을 연주합니다.

새교우 환영반

교인위원회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1월 29일, 2월 5일, 19일 3주간에 걸쳐 새교우들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 및 신앙 간증의 시간을,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 교육이 마친 후 2월 26일에는 엄재관/김용희 장로님 덕에서 새교우들을 초대하여 환영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새가족들과 친교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장로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2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이영애 교우님께서서는 미국에 오신지 40년이 넘는 동안 시카고와 달라스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맡으며 신앙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계시고, 중앙 2구역에 속하십니다.

서희찬/박미애 교우님 가정은 미국에서 post-doc 생활을 하던 1993년에 샌디에고에서 결혼을 했고 1995년에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에 교수로 가게되어 현재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보스턴에 연구차 잠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두 딸과 아들을 두고 계시고, 중앙 4구역에 속하십니다.

윤영자 교우님께서서는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를 보살피시기 위해 미국에 오셨습니다.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하였으나 기독교 집안인 시댁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권사직분으로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중앙 2구역에 속하십니다.

한혜정 교우님께서서는 MGH에서 post-doc으로 일하고 계시는 남편을 따라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교회에 가본 적은 있으나 신앙 생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출산을 2주 앞두고 있으며 보스턴에 거주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에 속하십니다.

정동길 교우님께서서는 한국에서 오랜기간 동안 신문기자 생활을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 미국에 3년 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무교집안에서 성장하였으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고 이숙재 권사님 권유로 보스턴 한인교회에 오게 되었고 중서 4구역에 속하십니다.

김중연 장로/주연상 권사 가정: 김중연 장로님께서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한 목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가 Richard Kim (김은국)의 <<순교자>>를 번역하기 위해 읽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연상 권사님께서서는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에 간호사로 오셨고,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는 장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은퇴 후 보스턴에 어린 손자 손녀에게 한국말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중앙 2 구역 소속입니다.

윤원길 장로/윤만강 권사 가정은 1970 년대에 필라델피아로 오셨고, 윤원길 장로님께서서는 3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셨습니다. 보스턴에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스턴한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오래 전부터 하셨으나 새교우반을 이번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중앙 2 구역 소속입니다.

성수정 교우님께서서는 자녀 교육와 어학연수 차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오시기전에는 러시아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학교에서 근무 하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자녀 교육을 서포트하는 일 가운데 여러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중앙 3 구역에 속하십니다.

보스턴 한인 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을 통해 보스턴 한인 교회에서 신앙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음악예배



뉴멕시코 단기선교



남선교회주최 설날 옷돌이



재임 장르 & 신임 서리집사



변화경 은퇴장로와 찬양대



청년 2부 연합인벤트



뉴멕시코 단기선교단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